

간접화행과 대화함축에 관한 연구

이효웅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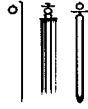
Abstract

This paper tries to investigate indirect speech acts and conversational implicatures. Searle(1975) suggests that understanding indirect speech acts require our knowledge of three elements to support a chain of inference. They are the felicity conditions, the context of the utterances, and principles of conversational cooperation. Davison(1975) tries to present syntactic structures to propose for indirect speech acts. Geis(1995) also tries to address the question whether there exists a class of conventionalized indirect speech act forms. Grice(1975, 1978) suggests that conversational implicatures be implied, contextual, and cancellable. He also shows the connection between the cooperative principles and maxims, and conversational implicatures. Cole(1975) presents the synchronic and diachronic status of conversational implicatures. Wright(1975) deals with the notion of conversational implicatures in terms of natural and nonnatural meaning. This paper also attempt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rect speech acts and conversational implicatures.

I. 서론

화행을 이야기할 때 직접화행과 간접화행을 구별하는 것이 보통이다.

1) 한국해양대학교 영어과 교수



Austin (1975)이 지적인 것과 같이, 불을 꺼달라는 요청은 (1)과 같이 명시적인 수행문장을 사용하거나, (2)와 같이 비 명시적인 수행문장을 사용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가 있다.

- (1) a. I order you to turn out the lights.
 - b. I promise to turn out the lights.
 - c. I bet you five dollars that Bill will turn out the lights.
 - d. I propose that we get someone else to turn out the lights.
- (2) Please turn out the lights.

그러나 많은 학자들(Sadock, 1970, 1972; Gordon and Lakoff, 1971; Green, 1975; Searle, 1975; Geis, 1995)은 근본적으로 똑같은 요청이 (3)과 같이 의문문의 사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 (3) a. Could you turn out the lights?
- b. Would you mind turning out the lights
- c. Why don't you turn out the lights?

그렇지 않으면 (4)와 같이 단언문에 의해서도 똑같은 요청이 전달될 수 있다고 한다.

- (4) I'd like for you to turn out the lights.

(5)와 같은 경우에는 발화문의 형태와 문자 그대로의 의미사이의 관계와 수행되는 행위는 완전히 관습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특정한 통사형태와 임의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추론될 수 없기 때문이다.

- (5) a. Bill Clinton is President.
- b. Is Bill Clinton Presid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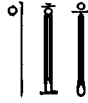
c. Vote for Bill Clinton!

이와 같은 행위는 문자 그대로의 행위라고 한다. 그러나 (3)과 (4)의 경우는 그들이 인습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화행들 이외의 화행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언어적인 구성문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언어적 행위를 간접화행이라고 한다. Sadock과 Zwick는 한 문장의 형태는 하나의 문장의 형태와 관습화된 언표내적 힘에 의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화 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이라는 말은 Grice(1975)에 의해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Grice(1975, 1978)에 의하면 대화를 하는 경우에 화자와 청자는 협동적으로 추론을 한다는 것이다. 화자는 단순히 문장을 서술하기보다 어떤 것을 함축 하므로써 청자가 추론을 형성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이 행위들에 있어서는 충분한 규칙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의사소통에 있어서 화자와 청자의 일종의 묵시적인 동의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는 대화는 연결이 되지 않는 말의 연속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대화는 어느 정도 특징적으로 협동적인 노력이고, 그리고 대화의 각 참가자는 그 대화의 속에서 어느 정도는 공통적인 목적이나 일련의 목적들 혹은 적어도 상호 수락된 방향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방향의 목적은 처음부터 고정되어져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대화를 하는 도중에 생겨 날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약간의 가능한 대화의 이동은 대화의 부적격성으로 인해서 참가자가 준수하도록 여겨지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원리를 형성할 수 있다. 당신의 대화에 필요한 만큼만 기여하라. 이와 같은 협동원리(Cooperative Principle)가 대화 함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Grice의 주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Searle(1975), Davison(1975) 및 Geis(1995)가 제시한 간접화행(indirect speech acts)과 Grice(1975), Cole(1975) 및 Wright(1975)이 제의한 대화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간접화행(Indirect Speech Acts)

1. Searle의 접근방법

Searle(1975)에 의하면 간접화행에 있어서 화자는 청자편의 이성과 추론의 일반적인 힘과 더불어,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그들이 상호공유하고 있는 배경지식에 의존하므로써 그가 실제로 말하는 것 이상으로 청자에게 전달을 한다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간접화행의 간접적인 부분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기구는 청자가 추론이라는 능력과 함께 화행의 이론, 협동 대화의 어떤 일반적인 원리 및 화자와 청자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에 근거한 배경 정보를 포함한다. Searle이 제시한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6) Student A: Let's go to the movies tonight.

(7) Student B: I have to study for an exam.

위에(6)에서 발화는 특히 Let's라는 의미 때문에 의미에 의한 제의를 구성한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문장의 문자 그대로의 발화는(8)이나 (9)와 같은 제의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8) Let's eat pizza tonight.

(9) Let's go ice skating tonight.

그러나 맥락속의 (7)의 발화는 보통의 제의에 대한 거절을 구성하게 되지만, 이것은 의미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의미에 의해서는 단순히 B에 관한 서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서술은 제의에 대한 거절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Searle(1975)은 간접적인 요청과 명령과 같은 지시를 하는데 아주 표준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다섯 그룹의 문장들을 제시하고 있다.

- (10) a. Can you reach the salt?
 b. Can you pass the salt?
 c. Could you be a little more quiet?
- (11) a. I would like you to go now
 b. I want you to do this for me, Henry.
 c.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could do it for me.
- (12) a. Will you quit making that awful racket?
 b. Would you kindly get off my foot?
 c. Won't you stop making that noise soon?
- (13) a. Would you be willing to write a letter of recommendation for me?
 b. Do you want to hand me that hammer over there on the table?
 c. Would you mind not making so much noise?
- (14) a. You ought to be more polite to your mother.
 b. You should leave immediately.
 c. Must you continue hammering that way?

위의 예문에서 (10)은 청자가 수행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11)은 청자가 어떤일을 할 것을 화자가 소원하거나 원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문장이라고 주장한다. (12)는 청자가 어떤일을 하는 것과 연관이 있고, (13)은 어떤 일을 할려는 청자의 바램이나 용의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14)는 어떤 일을 하는 이유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문장형태들이 간접적인 요청으로 혹은 명령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Searle(1975)은 간접화행에 대한 설명을 화행의 이론과 협동적인 대화의 어떤 일반적인 이론 및, 상호공유하고 있는 사실에 근거한 청자와 화자의 배경적인 정보의 관점에서 설명하여 간접화행의 연구에 새로운 길을 열어 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2. Davison의 접근 방법

Davison(1975)은 간접화행의 특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루었다. 첫

째, 간접화행의 측면은 평상적인 직접 화행과는 달리 두가지 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첫번째 관계는 화자와 청자사이의 관계이고, 그다음 관계는 화행에 관련된 명제나 행동과 그것에 대한 화자와 청자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첫번째 관계에 대해서 그는 간접적인 서술과 질문들이 보통 사용되는 상황을 무엇을 말하려는 화자의 의도와 청자의 예견된 반응사이에 어떤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특징지었다. 그에 의하면 대부분의 화행들은 어떤 종류의 언표내적 행위가 수행되는가를 명시하는 기술을 가진다는 것이다. 간접화행은 직접화행과 똑같은 기술(description)을 가진다는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문장부사들 (fortunately, obviously, happily, unfortunately, sad to say)은 의문이나 요청과 함께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사들은 휴지에 의해서 촉발되는데, (15)에서는 일어날 수 있지만 (16)이나 (17)에서 일어나면 아주 이상하다는 것이다.

- (15) The anarchists, (unfortunately, fortunately, obviously) have no organization.
- (16) *Do the anarchists, (unfortunately, fortunately, obviously) have any organization?
- (17) *Get, (unfortunately, fortunately, obviously) an organization, you silly, misguided boy.

간접 의문문과 서술문은 그들의 표면적인 구조가 무엇이든 이동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다.

- (18) a. May I say that the souffle is delicious.
b. The souffle is delicious, may I say.
- (19) a. May I ask if those are real diamonds?
b. Are those real diamonds, May I ask?

이상에서 보았듯이 Davison은 간접화행을 문장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그는 간접화행에 대한 완전한 구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3. Geis의 접근방법

Geis(1995)는 일종의 양식화 된 간접화행이 존재하는 것인가를 밝히려 고 했다. 그에 의하면 화자가 한 종류의 화행에 대한 언표내적 힘의 지표를 가진 발화를 사용하나 다른 어떤 화행을 수행할 때 간접화행을 가진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Can you pass the salt? 라는 발화문은 간접적인 요청이라고 말하여 진다. 왜냐하면, 이 발화문은 의문문의 언표내적 힘의 지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발화문은 요청을 하는데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간접화행의 인지적인 접근 방법을 설명하였다. 그에 의하면 화행 이론가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과 같은 복잡한 일을 하기위해서 날마다 발화문을 사용하는 우리의 능력에 있어서 형태나 문자 그대로의 의미보다 맥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DSAT안에서는 가장 자연스러운 가정은 발화문의 형태와 특별한 화행과의 관습적인 연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들 발화문의 형태와 상호 작용구조 조건에 일치 시킬수 있는 어떤 장치라고 주장한다. Geis(1995)의 논문은 Gordon and Lakoff(1971)의 문제의 발화문과 직접조건사이의 설명과 Searle and Morgan(1975)이 발화문 형태의 사용을 위한 형식의 양식화에서 생겨난 것으로 다루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Ⅲ. 대화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s)

1. Grice의 격률

Grice(1975)는 문장에 의하여 대화적으로 함축이 되지만 문장의 논리적인 구조의 일부가 아닌 한 문장에 의하여 화자가 전달하려는 측면이 있다

고 주장한다. 청자가 화자의 행위에 관해서 내리는 가정은 Grice에게 몇 개 다른 유형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다른 형태의 추론을 야기시키거나, 화자의 관점에서 볼 때, 함축을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이것들을 Grice는 격률이라고 불렀다.

Grice의 4가지 주요한 격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의 격률은 제공될 정보의 양과 관계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것이다. 현재의 대화 목적을 위해서 요구되는 만큼의 정보만 제공하라. 또다른 격률은 요구되는 이상의 정보는 제공하지 말도록 하라는 것이다. 둘째, 질의 격률은 사실인 것만을 말하라는 것이다. 여기에 속하는 두가지 구체적인 격률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당신이 거짓이라고 믿는 것을 말하지 마라. 둘째로 당신은 증거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라. 셋째로 관련성의 격률은 단하나의 격률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관련성이 있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관련성의 격률은 간략하지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Grice는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방법에 관한 격률이다. 이 격률은 말해진 것이 어떻게 말해질 것인가와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이 격률은 명확하게 하라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격률이 여기에 포함된다. 첫째로 표현의 애매성을 피하라. 둘째로 중의성을 피하라. 셋째로 간결하라(불필요한 상황함을 피하라). 넷째로 질서 정연하라. 이 대화 격률과 그것과 관련된 대화 함축은 대화가 사용되는 특별한 목적과 특히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Grice는 협동 원리와 격률들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대화나 의사전달에 핵심적인 목표에 대하여 신경을 쓰는 사람은 대화 교환의 참가에 관심을 가지도록 기대되어야 하고, 적당한 상황을 부여받아야 하며, 이 대화 교환은 그들이 협동원리와 격률들과 일반적으로 일치해서 행동한다는 전제하에서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Grice는 한편으로 협동원리와 격률사이의 관계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과 대화 함축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대화 교환의 참가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격률을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첫째, 그는 조용히 그리고 허세부리지않고 하나의 격률을 위반할지도 모르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어떤 경우에는 잘못 인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그는 격률과 협동원리의 작용으로부터 손을 뗄지도 모른다. 그는 격률이 요

구하는데로 협동할 용의가 없다는 것을 말하거나, 지적하거나, 분명하게 할지도 모르며, 예를들면, "I cannot say more: my lips are sealed." 라고 말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셋째, 그는 의견의 불일치에 직면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는 질의 격률중에서 두 번째 것을 위반하지 않고도 첫 번째 질의 격률을 이행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넷째, 그는 격률을 우롱할지도 모른다. 다시 말하면 그는 뻔뻔스럽게 하나의 격률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가 말했다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그가 전반적인 협동원리를 준수하고 있다는 가정과 일치시킬 수 있겠는가? 이 상황이 대화 함축을 특징적으로 야기시키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화함축이 이런식으로 생성되었을 때 Grice는 격률이 이용되고 있다고 말한다.

Grice는 대화함축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특정짓고 있다. p가 q를 함축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q를 대화적으로 함축했다고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는 말해질 수도 있다고 한다. 첫째, 그는 대화 격률이나 혹은 적어도 협동원리를 준수하고 있다고 여겨져야 한다. 둘째, 그는 p가 그의 가정과 일치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q가 요구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다는 가정. 셋째, 위에서 언급한 가정이 요구되는 것이 청자의 능력안에 있다고 화자는 생각한다는 것이다. 대화함축 존재는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비록 그것이 직관적으로는 사실 이해가 되지만, 만약 그 직관이 하나의 주장에 의하여 대치되지 못한다면 그 함축은 대화함축으로 간주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특별한 대화 함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청자는 다음과 같은 자료에 의존을 한다는 것이다. 첫째, 사용된 단어의 인습적인 의미와 관련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어떤 추론의 실체성. 둘째, 협동원리와 격률들. 셋째, 발화의 언어적 혹은 다른 맥락. 넷째, 배경지식의 다른 항목들. 마지막으로, 이전의 표제하에 놓이게 되는 모든 관련성이 있는 항목들이 두 대화 참가자에게 사용 가능하고 또 그 두 사람이 이것은 사실이라고 알고있거나 가정하고 있다는 사실.

Grice는 대화 함축이 무엇이든 그것은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된다고 말한다. 첫째, 대화 함축의 존재를 가정하기 위해서 적어도 협동원리가 준수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또 이 원리의 준수로부터 물러날 수도 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화된 대화 함축은 특별한 경우에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특별한 대화 함축이 존재한다는 계산이 맥락적 그리고 배경적 정보 이외에 단지 말하여진 것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한, 또 표현의 방법이 그 계산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한 똑같은 것을 말하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대치된 것의 어떤 특별한 특징이 함축을 결정하는데 스스로 관련성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문제의 함축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만약 우리가 이 특징을 비분리성이라고 부른다면, 높은 정도의 비분리성을 가진 친숙하고 특별하지 않는 관용어법에 담겨있는 일반화된 대화 함축을 사람들은 기대하게 된다고 말한다. 셋째, 대충 말하면, 대화 함축의 존재에 대한 계산이 표현의 인습적인 힘에 대한 최초의 지식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 함축은 그 표현의 인습적인 힘의 원래의 명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조건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넷째, 대화 함축의 진실은 말하여진 것에 대한 진실에 의하여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함축은 말해진 것에 의하여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말해진 것에 대하여 단지 말함으로서 혹은 그것을 그런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화 함축을 계산하는 것은 협동원리가 지켜지고 있다는 전제를 보존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또한 다양한 가능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 대화 함축은 이런 특별한 설명에 이접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Grice는 최초로 대화 함축의 개념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게 되고 나중에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촉발하게 된다.

2. 대화 함축의 공시적 통시적 위치

Cole(1975)은 대화 함축의 기준을 아래의 설명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 (20) Duke: It's cold in here.
- (21) Butler: I'll close the window, sir.
- (22) Close the window.

위의 (20)이 이해되는 방법에 대한 세 가지 사실은 우리들로 하여금 (22)가 추론의 결과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믿겠끔 만든다는 것이다. 첫째, (20)은 맥락에 있어서 두 단계의 의미를 가진다. 즉, 춥다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와 butler가 추위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좋다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서 사람들의 상호 관계에 관한 이성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부터 맥락의 의미로 옮겨가는 추론의 연쇄를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세상에 관한 사실들은 추론의 결과가 일어날 것인지를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3가지 특성들은 Grice(1975)의 추론의 특징과도 일치한다고 Cole(1975)은 주장한다.

또한 그는 한 구조의 통사적 특성들은 그 구조의 예가 되는 문장의 기저에 있는 의미론적 구조를 구현한다는 것과 또 이 특성들은 의미 구조의 대화 함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에 의하면, 공시적으로 (23)과 (25)는 대화 함축중의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26)과 (27)의 사이의 관계가 더 유사하다는 것이다.

- (23) Listen, Sam. Let's get that work out before we lose the client, will you (why don't you)?
- (24) I propose that we get the work out before we lose the clients, *will you(*why don't you)?
- (25) Listen, Sam. Get that work out before we lose the client, will you(why don't you)?
- (26) You're full of shit.
- (27) You're completely wrong.

그러나 통시적으로, 대화 함축은 (23)의 파생에 거의 확실히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일어났던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let's 구조의 대화 함축은 관습적으로 어휘 항목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에 동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대화 의미가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된 과정을 대화 의미의 어휘화라고 지칭했다. 이와 같은 과정은 문장의 논리적인 구조에 고유한



것이 아닌 의미를 전달하는 구조의 빈번한 사용의 결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화자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보다는 대화적으로 함축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된 문장들을 연관시킴으로써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Cole(1975)의 공시적 통시적 대화 함축의 연구는 이 분야의 연구의 범위를 확대시켰다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3. 대화 함축과 의미

Wright(1975)는 대화 함축의 개념을 완전히 그리고 적절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발화문의 함축과 의미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자로부터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화자의 의도는 그 의도가 어느 관습적인 발화문이 그의 목적에 가장 잘 부응하느냐를 통제한다는 면에서 그 발화에 관련성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여기에서 그점을 보기 위해서 또한 의도의 협동적인 역할의 지시를 더욱 보기 위해서 화자가 의사 전달의 상황에서 그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이룩하지 못하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고려해 보라고 말한다. 화자의 의도는 의사전달 행위의 만족스러운 완성이 요구하는데로 이해를 보증할 만큼 충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청자의 이해는 의도의 인식과 어떤 관계가 있고, 이렇게 해서 비언어적인 발화의 부자연스러운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Cole의 설명은 Grice의 설명과 다른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Grice의 분석은 언어적 행위의 관점에서 명시적으로 형성이 되었고, 그 반면에 Cole의 분석은 비언어적인 행위의 관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사실 Cole은 비언어적인 행위가 대화 함축이론을 잘 뒷받침 한다는 것이다. 대화 함축이란 근본적으로 발화가 발화되었을 때 한가지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이해될 때는 완전히 다른 것을 함축하는 개념이다. 대화 함축의 경우에 의미하는 것은 말하여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duke가 butler에게 "It is cold in here."라고 말했을 때 duke는 "Do something about the temperature in here."라고 의미한다. 비록 이것은 "It is cold in here."가 진실로 의미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우리는 부자연스러운 의미를 더욱 상

세하게 분석을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대화 함축이 비명시적이고 함축된 의미라면 문제의 의미는 부자연스러운 의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이런 분석은 필연적으로 의도에 관한 연구를 확대시킨다. 왜냐하면 관습은 부자연스러운 의미의 유일한 요소는 아니기 때문이다. 비언어적 발화가 조사하기에 덜 복잡하고 또 덜 어렵기 때문에 그들의 연구는 언어적 연구를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이라고 Cole은 주장한다. 즉, 비언어적 행위에 대한 연구는 언어적 연구의 다양한 특징에 대한 명백한 그림을 제공하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대화 함축과 같은 문제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Cole(1975)의 연구는 이상에서 보았듯이 비언어적인 측면에서 대화 함축을 조명하였다. 또한 그의 연구는 비언어적인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화 함축의 연구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IV. 결 론

간접화행이란 글자 그대로의 의미에 의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 이외에 행위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사용되는 발화이다. "Could you turn out the lights."에서 화자는 청자가 어떤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요청하고, 그 반면에 "I'd like for you to turn out the lights."라고 말하는 화자는 청자가 어떤 행위를 수행하는 화자의 바램을 서술하는 명제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화자가 청자로 하여금 불을 끄게 할려는 것인 즉 화자의 의도된 언표내적 점은 추론이 되어야 한다. 문제의 추론은 Grice(1975)의 대화 함축의 종류인 것이다. 왜냐하면, Searle(1975)이 보여준 것과 같이 청자가 Grice의 협동원리에 근거한 상식적인 추론을 사용하므로써 이와 같은 경우에 화자의 언표내적 의도를 계산해 낼 수 있는 것이다.

Searle(1975)은 간접화행을 이해하기 위해서 추론의 연쇄를 지지하는 세가지 요소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결합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것들은 직접화행의 적정성의 조건과 발화의 맥락 및 대화 협동 원리이다. 또한 Searle은 간접화행의 이해에는 추론이 관련된다고 간주했다. 하지만 얼마

만큼이 추론적이고 간접화행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과 규칙으로 얼마만큼 관습화 되어야 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Searle과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간접화행은 사실 관용구이고 직접화행에서 간접화행으로 옮겨가는데는 아무런 추론이 관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심리학자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청자는 간접화행의 요청으로 직접화행에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다시 말하면, 청자는 간접화행의 글자그대로의 의미에 보다 쉽게 접근한다는 것이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간접화행에는 추론이 포함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다.

대화에서 청자와 화자가 서로 협동하겠다는 일종의 묵시적 합의를 Grice(1975)는 협동원리라고 불렀다. 또한 화자가 청자에게 주는 발화문에는 비 명시적인 요소인 함축이 포함되는데 이것을 밝히는 요소들을 Grice는 격률이라고 했다. 격률에는 질의 격률, 양의 격률, 관련성의 격률 및 방법의 격률이 있다는 것이다. Grice는 대화에 있어서 이 협동의 원리와 격률에 의해서 추론의 형성을 예측할 수 있다고 했다. Gordon and Lakoff도 대화함축의 규칙들이 하나의 화행을 다른 화행과 연결하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했다. 그들은 또한 대화함축의 분석이 모든 화행은 아니지만 약간의 화행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표현될 수 있다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데 왜냐하면 모든 화행은 어떤 종류의 진실성의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이런 분석의 장점은 구조상으로 다른 화행이 대화함축에 의해서 함축은 암시적이고 맥락적이며 취소될 수 있다.

간접화행에 관용구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추론적인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또한 대화함축에 있어서도 청자는 화자가 암시하는 것을 추론을 하여야 하므로 간접화행과 대화함축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Austin, J. L. (1975). How to do things with words. second edition. Oxford: Clarendon Press.

- Cole, P. (1975). The synchronic and diachronic status of conversational implicature. In Peter Cole and Jerry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Volume 3, 257-88. New York: Academic Press.
- Davison, A. (1975). Indirect speech acts and what to do with them. In Peter Cole and Jerry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Volume 3, 143-184. New York: Academic Press.
- Geis, L. M. (1995). Indirect speech acts. Michael, L. Geis (eds.), *Speech acts and conversational interaction*. 121-3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eis, L. M. (1995). The nature of speech acts. Michael, L. Geis (eds.), *Speech acts and conversational interaction*. 1-3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een, G. M. (1975). How to get people to do things with words: The whimperative question. In Peter Cole and Jerry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Vol. 3, 107-42. New York: Academic Press.
- Grice, H.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eter Cole and Jerry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Vol. 3, *Speech Acts*, 43-58. New York: Academic Press.
- Grice, H. P. (1978). Further notes on logic and conversation. In Peter Cole and Jerry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Vol. 9, *Pragmatics*, 43-58. New York: Academic Press.
- Gordon, D. & Lakoff, G. (1975). Conversational postulates. In Peter Cole and Jerry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Vol. 3, *Speech Acts*, 83-106. New York: Academic Press.
- Sadock, J. M. (1970). Whimperatives. In J. Sadock and A. Vanek (eds.) *Studies presented to Robert B. Lees by his students*, 223-38. Edmonton, Alberta: Linguistic Research, Inc.
- Sadock, J. M. (1972). Speech act idioms. In P. M. Peranteau, J. N. Levi, and G. C. Phares (eds.), *Papers from the English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329-39. Chicago: Chicago Linguistic Society.

Searle, J. R. (1975). Indirect speech acts. In Peter Cole and Jerry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Volume 3, 257-88. New York: Academic Press.

Saeed, I. J. (1997). *Semantics*. Massachusetts: Blackwell Publishers.

Wright, R. A. (1975). Meaning and conversational implicature. In Peter Cole and Jerry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Volume 3, 363-382. New York: Academic Press.

